

# IB 프로그램과 대학 연계 방안 모색

### 전북교육청, 'IB 고등교육 포럼' 참석... AI 시대 미래인재 양성 위한 교육 방향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과 대학 교육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며 미래형 교육 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24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IB 고등교육 포럼(2026 IB Higher Education Forum)'에 참석해 IB 프로그램의 교육적 가치와 대학 연계 방안 등에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제 바칼로레아(IB) 본부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IB 디플로마 프로그램(DP)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IB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갖춘 탐구력과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역량 등을 고등교육 현장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을 비롯해 국가교육위원회, 한국대학교육

협의회 대학 입학 관계자, IB 고등학교 교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에서는 전주교육대학교 IB교육연구센터 관계자와 도내 IB 운영학교 교원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현재 전북지역에서는 지평선고, 전주여고, 전주중앙여고, 순창고, 자유고, 양현고 등 6개 학교가 IB DP 후보학교로 운영되고 있으며, 성원고와 유일고, 호남고 등 3개 학교가 관심학교로 참여하고 있다.

포럼은 IB DP 운영 현황 소개를 비롯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험 사례 발표, 대학 및 고등학교 관계자들의 주제 발표, 청중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AI 시대, 우리는 어떤 인재를 길러낼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에서는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기존 지식

암기 중심 교육의 한계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탐구와 토론, 글쓰기, 비판적 사고를 중시하는 IB 교육이 미래 고등교육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장기영 미래교육과장은 "IB DP는 학생들의 탐구력과 상상 능력,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IB DP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학생들의 성장과 진로 설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IB 프로그램 운영 확대와 교육과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 도교육청, 전북기계공고서 공업계열 채용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공업계열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북교육청은 24일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도내 직업계고 학생과 취업 담당 교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업계열 채용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직업계고 취업 로드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는 반도체 및 자동차 부품 분야 기업들이 참여해 산업 현황과 직무 특성, 채용 절차, 기업 요구되는 인재상, 근무 환경 등을 소개했다. 학생들은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실제 채용 과정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취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

특히 설명회에는 영산글로벌, 엠케이모터,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등 관련 기업이 참여해 산업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채용 정보를 공유했다. 학생들은 사전에 조사한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질의응답에 참여하며 관심 기업의 채용 절차와 취업 준비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상근 기자

### 전주 학교운영위원장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운영위원장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공동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24일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장 149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수에서는 '학교운영위원장의 역할과 이해'를 주제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위원장의 역할,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한 참여와 협력의 중요성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 역량을 높이고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또한 학교 운영 과정에서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학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 간 공감과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어진 '오감민족 마음치유 체험활동'에서는 마카롱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돼 학교운영위원장 간 친목과 소통을 다지는 시간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학교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오상근 기자

### '부담업무지시, 이게 맞나요?' 전주교육지원청, 퀴즈 한마당

전주교육지원청이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참여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2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담업무지시, 이게 맞나요?' 퀴즈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렴정책의 일상화와 구성원의 청렴 책무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1기관 1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직원들이 부담업무지시의 개념과 유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조직 내 공감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사례 중심의 퀴즈 형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부담업무지시의 개념과 주요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으며, 이후 직원 참여형 퀴즈가 이어졌다.

/오상근 기자

### '독서토론탐미당 참가자 찾습니다'

#### 도내 초교 5-6학년 · 중고교생 대상 전북교육청, 내달 24일까지 신청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토론 역량 향상을 위한 '제4회 독서토론탐미당' 참가자를 모집한다.

전북교육청은 책을 매개로 사회적 쟁점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독서토론탐미당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도내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 고등학생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3명으로 팀을 구성하고 지도교사 1명과 함께 신청해야 한다. 한 학교에서 여러 팀이 참가할 수 있지만 지도교사는 중복될 수 없다.

참가 신청은 오는 7월 24일까지 하며, 참가신청서와 토론 개요서 등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대회는 서면 심사를 거쳐 본선 무대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오는 8월 1일 서면 심사를 통해 초·중·고등부·고등부별로 각각 16개 팀을 선발하며, 선발된 팀은 8월 8일 전주대학교 온누리홀에서

열리는 예선전(16강·8강)에 참가하게 된다.

본선 4강 경기는 8월 29일, 결승전은 9월 12일 각각 전주MBC 공개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학교급별 지정 도서는 초등부의 경우 문선이 작가의 '지엄오아이', 중등부는 강리오 작가의 '어항에 사는 소년', 고등부는 이재열·권현지 저자의 '진격하는 AI와 흔들리는 노동자'가 선정됐다.

전북교육청은 참가 학생들이 지정 도서를 바탕으로 사회적 이슈를 탐구하고 논리적인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영근 문예재건강과장은 "전북교육청은 지난 2023년부터 독서토론탐미당을 개최하며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 향상과 건강한 토론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토론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맞손'**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도내 10개 대학이 정부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손을 맞잡는 가운데, 24일 열린 전북지역대학총연합회 회의에서 양오봉 전북대 총장, 박노준 우석대 총장 등을 비롯한 도내 대학 총장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전북대, THE 지속가능성 영향력 평가 '세계 49위'

#### 국내 7위, 거점국립대 3위... SDG전 분야서 고른 경쟁력 입증 ESG대학 운영 성과... 지역·글로벌 연계 지속가능 모델 '주목'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영국의 세계적 대학평가기관 타임즈 고등교육(The Times)이 발표한 'THE Sustainability Impact Ratings 2026'에서 세계 49위에 오르며 글로벌 Top50에 진입했다. 국내 대학 가운데 7위, 거점국립대 중에서는 3위다.

이번 평가는 유엔(UN)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를 기준으로 대학의 연구, 교육, 사회공헌, 국제협력, 대학 운영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올해는 전 세계 1,603개 대학이 참여해 17개 SDG에 대한 정량·정성 지표를 기반으로 경쟁을 벌였다.

전북대는 지난해 세계 101~200위권에서 올해 49위로 크게 도약하며 글로벌별 영향력을 입증했다. 교육과 연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사회 기여, 지속가능한 대학 운영 성과가 국

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세부 지표에서도 고른 성과를 보였다. △SDG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세계 6위 △SDG2(기아 종식) 세계 10위 △SDG7(경제적이고 청정하고 에너지) 세계 19위 △SDG11(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세계 26위 △SDG17(글로벌 파트너십) 세계 41위 △SDG9(산업·혁신·인프라) 세계 59위를 기록했다.

특히 SDG8 분야에서는 취·창업 지원, 현장실습 확대, 안정적 고용 환경 조성, 구성원 역량 개발 등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전년 200위권에서 세계 6위로 급상승했다.

이번 성과는 전북대가 추진해 온 ESG 기반 대학 운영과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결실로 풀이된다. 전북대는 탄소중립 실현, 지역사회 상생 프로그램, 학생 지원체계 구축, SDGs 연계 교육

확대, 지역산업 연계 산학협력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글로벌대학30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모델을 구축하고, 학생 중심 교육혁신과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산학협력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글로벌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 퍼듀대와 공동으로 JBNU-Purdue Research Institute(JPRI)를 설립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KAIST와 협력한 퍼지컬 AI 실증실 구축, 반도체공동연구소 운영, 해외 우수 인재 유치 확대 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다른 글로벌 평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전북대는 최근 2027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지속가능성 지표 점수가 전년 대비 3.3점 상승하며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전반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상근 기자

## 정읍 칠보면서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준공

#### 도, 가족단위 농촌유학생 유입 통한 지역소멸 위기 대응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정읍시 칠보면에서 도시 유학생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화수 정읍시장과 영영선 전북도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정읍 농촌유학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에 준공된 칠보면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은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단독주택 10세대와 지역 주민, 입주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로 조성됐다.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생활하게 될 유학생 가족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이 마련

된 것이다.

정읍시는 현재 영원초와 동동초, 이평초 등 3개 학교에서 21명의 농촌유학생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달 칠보초등학교가 농촌유학 운영학교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유학생 유입 확대가 기대된다. 새로 조성된 거주시설 10세대에도 유학생 가족의 입주가 예정돼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도는 진안과 임실, 순창 등에도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도내 농촌유학생은 신규 130명, 연장 208명 등 총 338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한 생활

인구 유입 효과는 745명에 달해 농촌유학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는 거주시설 조성과 함께 유학경비 지원,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농촌유학 가족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농촌유학은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교육환경을, 지역에는 생활인구 유입과 활력을 가져오는 상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와 교육, 정착 지원을 강화해 농촌유학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제17회 전북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3건을 최종 선정했다.

## 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3건 선정

#### 전북교육청, 교원 등 제출한 사례 대상 심사 미래형 교육공간 조성·폐교 활용 등 '주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거둔 직원과 기관의 우수사례 13건을 선정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제17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3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교원·교육전문직 인, 5급 이하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기관이 제출한 사례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총 1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부문 최우수상은 용산초등학교 안호연 교사의 '미래형 스템(STEAM) 공간 전환 및 지역사회 상생 모델 구축' 사례가 차지했다. 안 교사는 외부 공모사업 재원을 확보하고 사용자 참여 설계를 도입해 노후 교실을 미래형 융합교육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한편 지역사회와 연계한 상생 모델을 구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5급 이하 지방공무원 부문 최우수상은 임실교육지원청 방범 주무관의 '찾아낸 예산 되살린 폐교 만들어낸 미래세대교육' 사례가 선정됐다. 폐교를 교육지원으로 활용해 미래세대교육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점이 주목받았다.

교육공무직원 부문에서는 성내초등학교 정현주 교무실무사의 '예산 0원으로 이룬 디지털 전환, 연구학교의 성공을 이룬다!' 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제한된 예산 속에서도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관 부문 최우수상은 학교 지원 중심의 정원 배정 체계를 구축한 전북교육청 행정과가 차지했다.

전북교육청은 선발된 우수공무원과 기관에 대해 교육감 표창을 수여하고, 선발 등급에 따라 성과수령금 최고 등급 부여와 포상금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 전북교육청, 양성평등교육 담당교사 역량 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양성평등교육 담당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전북교육청은 24일 전주치명자신성지 평화의전당에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양성평등교육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수에서는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 디지털 성폭력 예방 등 성인권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성평등의 의미와 가치를 음악과 해설로 풀이한 '음악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스토리텔링' 강사가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문화예술을 접목한 이번 프로그램은 딱딱한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쉽고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도록 구성돼 참가 교사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오상근 기자